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직접 도전합니다”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 ‘인액터스 조선’ 출범

사회적 책임·도덕성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 양성 목표 프로젝트 ‘MAYO·DABA’ 등 진행...“능동적 경험 되길”

“인액터스’는 책상에서 벗어나 본인의 생각을 직접 실천하고, 하나의 비즈니스로 구축해보기 위한 모임입니다. 뒤편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없고,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학생들이 무엇이든 ‘직접’ 도전해봤으면 합니다.”

전 세계 35개국, 1천500여개의 대학과 글로벌 후원기업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 ‘인액터스(Enactus)’가 최근 조선대학교에서도 출범했다.

이에 조선대도 인액터스 코리아 소속 대학에 이름을 올리며 공식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조선대가 공식 인액터스 팀으로 허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현태, 채승원, 김관진, 김지혜, 김채영, 한유석, 박가연 등 7명 학생 덕분이다.

지난해 교내 대외활동 ‘조선라이프아카데미’를 통해 연을 맺은 이들은 당시 다양한 창업 강연을 접했다.

주제는 서로 달랐으나 강연들이 가리키고 있는 지향점은 하나였다.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에 공감한 학생들이 모여

‘인액터스 조선’이 결성됐다.

현재 인액터스 조선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 ‘MAYO’는 상품가치가 충분하지만 마감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상품에서 영감을 얻었다.

폐기된 상품들은 문자 그대로 쓰레기로 전락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부수비용마저 발생한다. 때문에 인액터스 조선은 쓰레기 감축과 기업의 이윤, 소비자의 만족도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감 할인’ 정보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할인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취합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의 할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기업 역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동시에 작은 이윤이나마 보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맑고 깨끗했던 모습의 바다로 되돌리자”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DABA에선 해양 쓰레기를 수거, 재활용한다.

특히 처리가 어려운 ‘페어망’을 3D 프린트로 다시 재활용 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세계 35개국, 1천500여개의 대학과 글로벌 후원기업이 참여해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갖춘 실천형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 연합 단체 ‘인액터스(Enactus)’가 최근 조선대에서도 출범했다. 사진은 인액터스 조선 1기 구성원들.

이를 위해 인액터스 조선은 어촌에서 발생한 페어망을 직접 공급받아 실제 제품 생산까지 마친 뒤,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는 교육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나타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상품성을 높여 비즈니스 모델을 점차 확장할 방침이다.

이렇듯 인액터스 조선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본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현태 인액터스 조선 초대 회장은 “아직 이러한 비즈니스 솔루션 프로그램이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 대학생들은 접해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본인만의 비즈니스를 실천

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디서 실행해야 하는지 몰라 머릿속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그렇지만 누구나 대학·일상 생활에서 사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다”며 “이러한 것들이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인액터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비즈니스로 구축하는 ‘능동적 경험’을 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뒤편지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없다”며 “대학생이라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무언가를 해보며 성취감을 맛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영기자



광산구 월곡2동 주민자치회 민·관·경 합동 방법순찰

광주 광산구 월곡2동 주민자치회(회장 노한복)가 최근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대장 이상현),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장인)와 합동 방법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방법순찰은 지난해 월곡2동 주민총회 마을의제인 ‘마음놓고 놀자 동네한바퀴’의 일환이다.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 정기적으로 방법순찰을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월곡2동 주민자치회는 앞서 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 월곡2동 통장단 등과 마을의 안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유근기자



광양경찰,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광양경찰서는 22일 “최근 광양읍에 있는 마을회관을 찾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들은 순간 대처 능력이 비교적 낮은 어르신들의 잘못된 보행과 운전습관을 바로잡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 무단횡단하지 않기, 차도가 아닌 인도 보행, 야간에 밝은 색 계통 옷을 착용하기 등 노인 보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담긴 팸플릿과 홍보물품인 한방파스를 함께 제공했다.

박우영 읍내지구대장은 “광양읍 노인 인구 비중이 많아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이 중요한 만큼 어르신이 안심할 수 있는 광양을 위해 노인정, 마을회관을 방문해 맞춤형 보행 안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길기자



조선이공대-기아AutoLand광주 협약

조선이공대와 ‘기아(주)AutoLand광주’ 자동차 관련 분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손을 잡았다.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22일 “이날 오전 대학 본부동 2층 프레젠테이션실에서 조순계 총장을 비롯해 기아AutoLand광주 박치용 광주경영지원실장, 이창준 인사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이공대와 기아AutoLand광주가 상호간의 취업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며, 산학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산학 연계 인력양성(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인턴십 등) ▲산학협력 가치창출 및 발전 ▲상호발전 위한 인적·물적 교류 ▲신규인력 채용 시 채용설명회 지원 및 취업정보 공유 ▲산학인턴십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채용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순계 총장은 “오늘 기아AutoLand광주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대학 기계과, 미래자동차학부, 전기과, 기계설계과, 자동화시스템과 등 다양한 분야의 공학리더 양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이 자동차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본사 손님

▲박우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영암청소년수련관, 역사탐험대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은 22일 “최근 전북 군산시, 서천시 일대에서 ‘2022 역사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한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시작으로 군산·서천 지역 일대를 이동하면서 모듬활동과 미션투

어로 근대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역사는 따분하게만 느껴졌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홍호기자



담양군 수북면 지사협 ‘한과 만들기’ 체험

담양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중화·전재우)는 최근 수북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수북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인 1조로 진행해 참여 아동들의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협의체 위원·지역아동센터 아동 30명이 참석, 전통 강정·한과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재우 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민족 고유의 한과를 직접 만들고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색다른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 간 유대감도 높이고 한국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 금호1동 지사협 ‘호동이네 시네마천국’ 성료

광주 서구 금호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준)는 22일 “최근 관내 5개소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체 초등학생 90명을 대상으로 단체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호동이네 시네마천국’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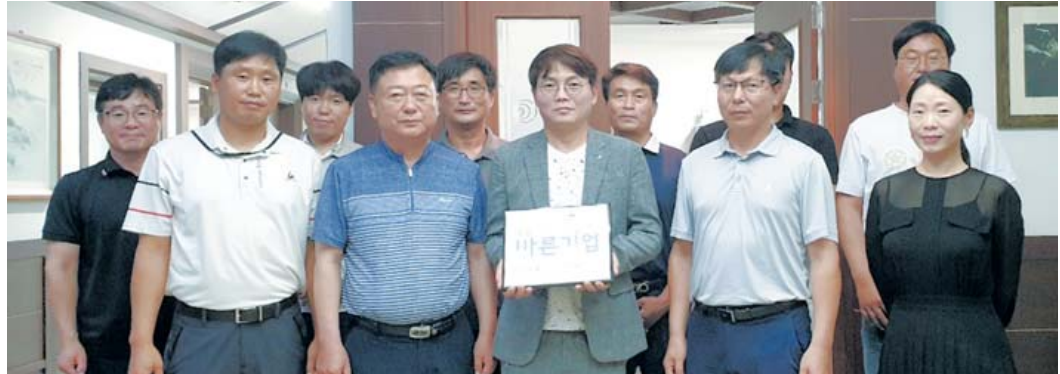
영화관람을 마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소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멀

어졌던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돼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관람 이후, 참석아동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호신용 안전벨을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금호1동보장협의체 김경준 위원장은 “금호1동의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소외된 아동들의 빈 자리를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인재영기자



수성건설(주)·(주)수성 그룹 적십자사 나눔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는 22일 “수성건설(주)과 (주)수성 그룹(회장 여학영)이 ‘숨숨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여수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수성건설과 (주)수성 그룹은 대한적십자사의 ‘숨숨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해 매달 20만원씩 정기적인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학영 회장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적십자사를 신뢰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숨숨이가 바른기업’은 매월 정기적인 기부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한적십자사 대표 나눔 확산 캠페인이다.

/김대인기자

목포경찰, 도서지역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목포경찰서는 22일 “최근 도서지역 특성상 교육·홍보 기회가 적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안군 암태면 오도리 노인정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는 노인학대·성폭력 등 범죄 피해 유무 확인을 위한 개인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차대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사전지문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유형에 따른 범죄 피해 예방법, 교통사고 예방 안전수



광주여대 사회봉사센터-무등산국립공원공단 협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사회봉사센터는 22일 “최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무등산국립공원공단과 ESG경영 및 탄소중립 실천 등 지역연계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공단 관계자와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및 미용학과과가 함께한 이번 협약식에는 두 기관이 친환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경영 및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자라는 뜻을 같이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회봉사센터는 “무등산국립공원공단의 연계를 통해 두 기관이 지난 역량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연계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